

“나 ○○○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배려, 빈 그릇 운동을 사랑하겠습니다.”

23일 서울 흥제동 인왕초교 3학년 4반의 급식시간. 27명의 학생들은 밥을 먹기 전 힌차게 외친다. 메뉴는 현미밥과 함박스테이크, 나물반찬, 깍두기, 된장국. 학생들은 ‘달그락 달그락 속속 삭삭’ 숟가락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점심을 똑딱 해치운다. 이후 아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물병의 물을 식판에 붓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식판을 행구고는 금붕어 입모양을 하고 ‘쏘옥’ 물을 다 마셔버린다. 세계를 쓰지 않고 물로만 행구도 될 정도로 식판이 깨끗해졌다.



올해 초부터 빈 그릇 운동을 시작한 3학년 4반 학생들. 처음에는 다 먹은 식판에 물을 부어 마시는 것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자연스럽게 적극 동참하고 있다.

3학년 4반 어린이들이 ‘빈 그릇 운동’을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담임 신정화 교사(54)를 만나고부터다.

신 교사는 20여 년 전부터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하다 2005년 시작된 에코붓다의 빈 그릇 100만인 서약 캠페인을 보고 같은 해 10월 학급에 빈 그릇 운동을 도입했다.

신정화 교사는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학교, 도시, 전국 교실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될지 아이들과 함께 계산해 보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식판에 물을 부어 깨끗이 먹는 방법이 처음부터 익숙했던 것은 아니다. 구역질을 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더러 발생했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신 교사는 ‘빈 그릇 마녀’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 모두 불평없이 잘 해내고 있다. 학생들은 게다가 재활용, 분리수거, 작은 숲 가꾸기, 걷기, 달리기 등을 실천해 지구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5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CO<sub>2</sub>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7명의 어린이가 50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장으로 한 학기를 쓰고도 남는다.

이렇게 학생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한 계기는 신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험을 보여주고 나서부터다. 신 교사는 점심을 먹고 난 뒤 행구지 않은 식판에 물을 붓고 넣은 금붕어가 금방 죽는 과정을 보여줬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 학생은 이를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 인왕초  
‘빈 그릇 운동’ 현장

“앗! 깨끗한 빈 그릇 식판과 더러운 식판에 물고기를 넣었다. 풍당풍당/아...죽었을까? 살았을까? 타이어 펌프질 하듯 밤새 내 심장은 조마조마/지구是我们的 삶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통령보다 더 큰 존재!/음식 남김 식판의 물고기는 결국 죽었지만 환경으로 가는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 같은 신 교사의 환경보호실천 교육 덕택에

2008년 10월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청소년 환경영웅수기’에 신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 세 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로 10여 개의 다른 학교도 참여하는 등 인왕초등학교에는 빈 그릇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신 교사는 “부모님들 역시 빈 그릇 운동이 실질적인 환경보호 해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긴다”며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하는 노력을 보이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점심시간에 앞서 신 교사는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로 선정돼 공개 수업을 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탄소배출권과 네가와트, 그리고 에머지 값이다. 네가와트는 절약으로 얻은 잉여에너지로 발전소

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며 에머지 값은 동물이 생태계에 주는 효율성을 말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저탄소 녹색교육’을 부모님께 설명하고 서로 공유하며 환경운동을 유도한다. 신 교사는 “이렇게 녹색실천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환경소양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동화될 수 있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편하게 살아야 후손들에게 물려주죠

신정과 교사는 해마다 반이 바뀌는 2월 말부터 3월 초순이던 한바탕 난리를 치른다. 빈 그릇 운동을 힘써하는 탄식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편식하는 배위를 가졌거나 부모의 편식습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너무 무리다”라는 원성을 듣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신 교사는 “93%이상의 어린이는 처음부터 잘하거나 한 달 정도면 익숙해지게 된다. 한 달이 고비다”며 “하루 이를 지나면 비움과 나눔의 아름다움 고통임을 차츰 깨달아 전체적으로 실천을 잘 해내는 분위기에 동참하게 된다. 1년 후 아이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빈 그릇 운동을 해낸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신 교사는 11월 24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저탄소녹색성장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신 교사는 “우리나라는 최근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쓰레기는 없다. 다만 쓸모가 없을 뿐이다’는 말처럼 지저분하지만 폐휴지·쓰레기 등을 재활용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후손들에게 자원과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발우공양, 스님보다 잘해요

불교계 환경보호단체 ‘에코붓다’

1988년 설립된 (사)에코붓다(이사장 범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회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생명존중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사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에코붓다는 현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교육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생태학교, 생명운동 아카데미, 생태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성, 학술출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이후에는 풍요와 소비의 상징인 쓰레기 문제를 화두로 삼고 ‘쓰레기제로운동’을 전개했으며 최근에는 ‘빈 그릇 운동’과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학년 4반 학생들과 신정화 교사는 이 쓰레기와 폐휴지로 흥제전을 꾸몄다.



‘종이는 종이끼리’ 학생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신약의료용구 개인용온열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합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관절,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역건강메트, 오심전조기, 오주배개등 자매모임당)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